2015년 5월 12일 (화) 이예뜨 의 일기 10918

5월이건만, 아직 날씨는 쌀쌀하며 감기가 걸리기에는 퍽 좋은 날씨같다. 겨울이 꽃을 샘내는 기간은 이미 지났건만은 아직도 아침과 저녁은 봄과 같지 않았다. 그러면서도 12시쯤을 되면 만연한 여름이다 싶은게, 봄의 날씨는 어디로 갔나- 싶은 마음만이 들 뿐이었다.

그리운 사실 어느때와 같은 것 이였다.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리듯, 어느때와 같은 면모를 보고 있는 건 여지 다른 날과 다를 바가 없었다. 아, 하나 달라진 것 이라면 늘 야자를 끝나고서 집에 갔는데, 오늘은 야자가 끝나고서 단어시험을 보기 위해 학원에 갔다는 점 이다. 하루에 100개씩 외워야 했는데, 맨 처음 그 숫자에 기겁을 하다가 이내 그것이 중학교 1학년생이 외우는 것 임을 알고서 외운만 하겠다 생각을 한 채 외웠다.

본래 나는 어릴적부터 그것이 이해가 온전히 다 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멈추고는 했다. 이해가 안되면 그곳에서부터 막히고 어느것도 머릿속에 안들어오는 지라, 어느순간부터인가 나는 수학과 영어 앞에서면 뇌가 기름칠 필요한 기계가 된 것 처럼 변해버려서 기초가 점차 부족해지고 있었다.

마라톤 경기자가 제 페이스를 잃으면 이내 저 뒤로 밀려나듯, 나도 점차 밀려나다 이내는 그 격차가 벌어져버렸다. 그래, 사실 영단어 100개는 그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하는 행위였기에 피곤해도 기분은 상쾌하였으리라고 나는 생각 해본다.

내일이면 또 언제나와 같은 하루가 시작이 될 것이였다. 그 속에서의 특별함은 조개에서 진주를 찾기와도 같이- 어쩌면 그 이상으로 어려울지도 모르는 일 이다. 언제나와 같은 하루. 하지만 사실,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특별함을 만드는- 퍼즐 조각 하나 하나가 아닐까. 라는 생각을 하며, 오늘 하루를 끝마치려 한다.

인간과 기억 아카이브
Human & Memory Archives